

몸의 확장성과 섹슈얼리티 이미지 연구*

나 수 진**

I. 서론	V. 결론
II. 섹슈얼리티의 이론과 분석틀	참고문헌
III. 영화와 무용 속 섹슈얼리티 이미지와 몸	Abstract
IV. 이미지 생성과 해석의 근원으로서의 몸의 확장성	

I. 서론: 섹슈얼리티 이미지 생성과 해석의 문제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이다. 이 말은 오늘날의 의사소통 방식이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의 구술문화나 활자문화가 인간의 의식영역에 바탕을 두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소통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텍스트로 기능할 때 보기와 읽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의식 이외에 무의식 또한 해석에 상당부분 관여’¹⁾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인간의 몸과 연관되어 생성되고 유포되는 섹슈얼리티 이미지에 있어 유독 많은 장애를 유발하여, 빈번히 예술과 외설의 논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처럼 몸 중심의 문화가 주류를 형성하고,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과잉’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분별하게 표현되는 시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섹슈얼리티 이미지의 과잉이라는 현실에 반해, 섹슈얼리티에

* 이 연구는 2011년 나수진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mvps00@naver.com

1) 박성환(2011), 시각이미지와 텍스트영상에 있어서의 ‘읽기-보기’의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영상학회』 9, pp. 4-5.

대한 올바른 이해나 표현방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부족한 편이며 특히 섹슈얼리티 이미지의 중심이 되는 ‘몸’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적 요구에 근거를 두고, 본 연구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생성하는 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삼고, 이를 통해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의 과정은 우선 섹슈얼리티란 무엇이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정의를 내리는 이론적 과정과 실질적인 예술작품 속에서 섹슈얼리티 이미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살펴보는 분석의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론적 과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선행연구²⁾를 통해 몸 담론에 대한 철학적·역사적 근거를 이해하고 춤에 표현된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사회와 어떤 연관 속에서 규정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섹슈얼리티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저작과 논문을 통해 섹슈얼리티의 개념과 연관이론을 고찰하고 섹슈얼리티에 내포된 의미의 사회적 기능에 따라 섹슈얼리티를 통속적, 진화적, 혼재적으로 구분하고 이후 실질적인 작품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의 과정에서는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품 중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슈가 된 영화 3편과 무용작품 3편을 선정³⁾하여 이론적 과정에서 도출된 분석틀에 따라 작품에 표현된 다양한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 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의 개별적 사례에서 드러난 몸의 공통적인 특성을 귀납적으로 파악하여 ‘확장성’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몸의 특성이 섹슈얼리티 이미지 생성의 근원임과 동시에 해석의 통로라는 사실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몸 담론과 관련해서는 김말복(2007)의 ‘몸과 춤’, ‘억압에서 해방으로 : 몸과 춤’과 이윤정(2003) ‘춤의 주체로서의 몸’을 참고하였으며, 춤과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정응근·이정연(2003)의 ‘춤 문화 속의 몸에 관한 여성주의적 성찰’과 유미희(2000)의 ‘최승희의 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근대적 성격’을 참고하였다.

3) 여기서 분석대상을 무용에 국한하지 않고 영화를 함께 포함시킨 것은 둘 다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라는 점과 시각문화를 함께 주도하고 확산시켰다는 역사적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대중성의 극점에 위치해있고, 무용은 예술성의 극점에 위치해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몸을 중심에 두고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장점이자 단점인 대중성과 예술성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분석하였다.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피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와 작품선정에 있어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지 못했기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로 확장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표현되는 몸이라는 매체를 근거로 대중과의 소통지점과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원활한 소통을 위한 무용예술 분야의 진지한 자기반성과 이론적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중예술의 극점에 있는 영화와 순수예술의 극점에 있는 무용을 종합예술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여 바라봄으로써 영화의 예술적 본질을 새로이 확인하고 무용 또한 영화가 가지는 대중성이라는 영역이 예술로서의 무용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임을 재확인하는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이 연구를 계기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더 많은 학문적 탐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섹슈얼리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무용 작품에서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시작이 무용 전반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II. 섹슈얼리티의 이론과 분석틀

20세기 들어와 성을 생물학적 범주로 가두어 자연스러운 것으로만 인식하는 태도에 문제가 제기되고 역사적·문화적 시각으로 보는 주장들이 출현하면서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 성(sex) 이외에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개념으로 분화하였다. 인류의 발생 이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성’이라 함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로 존속해왔고, 근세에 이르러는 ‘성 관계를 맺음’이라는 의미에서 그 용어의 확장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흔히 우리가 성(性)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영어 표현의 sex, gender, sexuality가 한데 뒤섞여 있는 표현이다. 섹슈얼리티는 젠더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성과 관련한 인간의 욕망과 성적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과 규범들을 뜻한다. 즉 ‘욕망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성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이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이해심, 환상, 성의 존재 의미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⁴⁾이다. 때문에 인간의 호르몬이나 생식기능의 차이 및 유

전자 등 생물학적 요소에 따른 남녀의 정체감을 의미하는 성(sex)과도 구별되는 의미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즉 사회·문화적으로 정형화된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통칭인 젠더와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섹슈얼리티에 포함된 개인의 사고, 감정, 가치관, 신념, 취향 등이 사회·문화적 영향 하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섹슈얼리티 또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섹슈얼리티는 제프리 워스(Jeffery Weeks, 1945~)의 주장처럼 ‘본질적인 인간자질이 아닌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⁵⁾임을 의미한다. 워스의 언급에 따르면 섹슈얼리티가 본질적인 인간자질이라는 측면과 사회적·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측면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은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생겨나고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생물학적 측면에서 구성된다는 본질론적 관점과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회·구성론적 관점으로 발전하게 된다.

본질론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능이라는 본질적 속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남녀의 특성은 운명과 같은 것이므로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남녀의 성적 욕망의 구조는 바뀔 수 없다. 즉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성을 또는 여성성을 가지며, 남성적인 성적취향 혹은 여성적인 성적취향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는 ‘생물학적 성이 성별, 섹슈얼리티를 결정하여 sex - gender - sexuality가 정합성을 이룬다’⁶⁾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질론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성적 정체성들은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보편적 자질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자연적인 설명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보면 본질론의 입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보다는 사회에서 힘을 가지는 집단의 성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남녀의 성적 차이를 설명하거나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정체성 차이를 설명하기보다 본질론은 남성의 성적 공격성과 성적 문란을 옹호하였고 반대로 여성에 대한 비하, 그리고 동성애 혐

4) 김동중 외(2000), 『섹슈얼리티로 이미지 읽기』(서울: 인간사랑), p. 14.

5) 조셉 브리스토우(1997), 『섹슈얼리티』, 이연정, 공선희(역)(서울: 한나래, 2000), p. 22.

6)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1999), 『섹슈얼리티 강의』(서울: 동녘), p. 22.

오증을 일으켰다. 따라서 사회와 문화에 따라 개인의 성적 욕망이나 성적 정체성, 성적 관행들이 달라지는 것을 성에 대해 본질론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구성론적 관점에 따르면 섹슈얼리티 즉 성적 정체성, 성적인 욕망, 성적 관행들은 고정된 본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사회관계와 문화 맥락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성은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것이며 사회관계들에 따라 다르게 생산되는 것으로 가족 및 친족체계, 경제·사회적 조직체, 사회·정치적 규제, 저항 문화 등의 모든 사회관계와 연관 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 된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남성은 강한 성충동을 가지는 것으로 규명하고 성적인 자유와 성적 주체성을 보장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 반면 여성은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과 남성의 만족을 위해 도구화 될 것을 강요받는다. 남성과 여성의 비대칭적인 성적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성되는데 이것은 성이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회구성론에서는 섹슈얼리티의 정상과 비정상, 좋고 나쁨,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위계질서가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권력대립의 결과이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러한 구분 또한 변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한다. 때문에 사회구성론적 시각은 성적으로 주변화 된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는 사회구성론적 관점의 이론 가운데 가족 및 친족체계에서 사회화의 결과로서 섹슈얼리티의 형성을 파악하는 프로이드의 이론과 사회·정치적 관습과 제도, 문화의 측면에서 권력기제로서의 섹슈얼리티를 파악하는 푸코의 이론, 그리고 경제·사회적 구조의 측면에서 소비의 결과로서 분석하는 보드리야르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하지만 섹슈얼리티가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했든,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 생성되었든 간에 두 가지 측면 모두 권력 작용의 결과로 환원할 수 있기에 푸코의 이론에 비증을 더 두기로 한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능이기보다는 개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제도와 관념에 영향을 받으며 본능과 사회성 사이의 긴장 속

에서 형성되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구성물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⁷⁾ 프로이드는 『성 이론에 대한 세 글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1905)에서 인간은 원래 양성이었었는데 사회가 단성이 되도록 억압했다고 말한다. 인류의 보존과 노동력의 증가를 위해 사회는 남녀가 이성으로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아이를 낳아 양육하도록 가르쳐 왔다는 것이다. 또한 ‘성의 해부학적 구분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 (*Som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the Anatomical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1925)이라는 글을 통해 눈에 보이는 신체적 특징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성차를 구성해 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즉 그의 섹슈얼리티 이론의 핵심은 양성의 가까운 인간의 성이 성장과 발달에 따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불안, 남근선망의 단계를 거치면서 단성으로 분화되어 개개인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프로이드는 개인의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사회화 과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본능의 욕구에 충실하고자 하는 개개의 쾌락원리가 사회구성체 속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서 현실원리와 충돌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억압되면서 개인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와는 반대로 푸코는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필요에 근거하여 확대되고 조장되어 형성된다고 판단하였다. 『성의 역사 *Histoire de la sexualité*』(1976) 1권에서 푸코는 전통적으로 유포되어 온 ‘성의 억압가설’을 전복시킨다. 그는 섹슈얼리티 억압에 대한 현상보다 섹슈얼리티를 이루고 있는 요소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섹슈얼리티가 강조되고 생산되는 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푸코는 성적 욕망이 누구에 의해서 왜,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 졌는지에 집중하며 이러한 “성적 욕망에 대한 담론을 조장하는 권력이 존재”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억압가설에 반대하는 그의 견해에

7) 프로이드는 인간이 사회화되는 과정을 본능에 충실한 쾌락원리와 사회적 조화를 실현하는 현실원리의 충돌과 대립, 그리고 조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그는 인간의 섹슈얼리티 또한 유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됨을 주장하고 있다.

8)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역사적 맥락에 따른 성과 권력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권력이란 “주어진 한 사회에서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부여되는 이름”이라고 언급했다. 미셸 푸코 (1990), 『성의 역사 - 삶의 의지』, 이규현(역)(서울: 나남, 2004), p. 107.

따르면 성 담론(sexual discourse)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선동적인 기제들에 의하여 오히려 부추겨졌고, 권력의 기술이 성적인 욕망을 분류하여 확장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섹슈얼리티는 이성애적 일부일치제라는 사회 규범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는 “섹슈얼리티가 권력이 행사되는 지점에서 권력행사의 수단으로써 급속하게 많은 양이 의도적으로 양산”⁹⁾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푸코에게 있어 섹슈얼리티는 실재하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성적 담론에 의해서 분류되고 정의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에게 섹슈얼리티는 분석할 수 있거나 치료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식과 권력의 틀 안에서 분류되고 생성되는 사회적인 구성물인 것이다.

푸코의 권력기제로서의 섹슈얼리티 이론을 토대로 보드리야르는 오늘날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소비로서의 섹슈얼리티가 또 다른 권력기제로 작용함을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 『소비의 사회 *La société de consommation*』(1970)에서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아름다움’과 ‘에로티시즘’이라는 두 가지 코드를 통해 성 담론을 유포시키고 확산시킨다고 보았다.

‘아름다움’이라는 코드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규격화시키고, 인간의 육체를 부분화시켜 상품화한다. 미디어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되는 규격화된 이미지는 남성은 남성다워지기 위해, 여성은 여성다워지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규격에 맞추고 몸에 투자를 하는 소비를 일삼는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와 소비가 자율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라면 아름다움은 인간의 주체성을 간직한 실재로 인식되지만, 무분별한 소비사회의 코드와 심리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름다움은 그저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간직한 하나의 복제물, 시뮬라크르(simulacre)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사회의 코드로서 ‘에로티시즘’ 또한 규격화된 성적 취향과 습관, 행동 등을 유발시킨다. 연상 연하 커플의 유행, 여성주의의 섹스, 자유로운 동거와 부

9) 푸코는 이를 선동기제라고 하였으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고 판단한다. 역사적으로 15~17세기의 고해성사와 18세기의 인구문제, 그리고 19세기의 성의 과학화는 특정 섹슈얼리티를 유포시키는 선동기제로 작용하였으며 지배적인 성 담론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한다. 이광래(1989), 『미셀 푸코』(서울: 민음사), pp. 244~246.

부교환, 동성애, 원조교제 등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섹슈얼리티 코드들은 분명 과거에 비해 진보적인 섹슈얼리티를 표방한다. 하지만 교환가치로서의 에로티시즘은 사회적 예절이나 의례처럼 철저히 계산된 욕망의 기호화이며, 여기서 형성되는 섹슈얼리티 또한 실재를 모방한 허구일 뿐이며 참된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섹슈얼리티라 보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결국 그가 파악한 소비사회의 코드인 ‘아름다움’과 ‘에로티시즘’은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필요에 의해 유포되고 확산되어 특정 성 담론을 부추기는 권력기제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상 사회구성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프로이드와 푸코, 그리고 보드리야르의 섹슈얼리티 이론은 개인의 섹슈얼리티가 문화적 지형이나 사회제도와 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형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특히 개인의 섹슈얼리티가 사회나 권력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권력기제를 통해서 형성될 때 섹슈얼리티는 하나의 담론으로 기능하게 되고 성과 관련한 특정한 관습이나 통념을 강제하거나 억압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가 섹슈얼리티 이미지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해당 사회의 문화적 지형, 제도나 구조의 영향을 내포하게 된다. 즉 섹슈얼리티 이미지는 해당 사회의 주류적인 성 담론을 대표하거나, 비주류의 성 담론을 대표하기도 한다. 이런 섹슈얼리티 이미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는 해당 사회의 주류 성 담론을 유포하고 확산시키는 섹슈얼리티를 통속적 섹슈얼리티로, 비주류 성 담론을 유포하고 확산시키는 섹슈얼리티를 진화적 섹슈얼리티로, 그리고 이 둘의 속성이 뒤섞여 있는 경우를 혼재적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물론 통속적인 것이 무조건 나쁘거나 틀렸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진화적인 것이 무조건 좋고, 옳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자유에 연관된 것이기에 지나친 강제나 억압은 인간의 자유 자체를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기에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우선 통속적 섹슈얼리티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든, 패션에 나타나든, 혹은 문학 작품이나 예술작품에 표현된 것이든 상관없이 기존의 사회적 제도와 관념의 틀 속에 구속되어 그것을 답습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 권력에 의해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되고, 주류와 비주류로 분류되는 섹슈얼리티 이미지 중 지배적인 성 담론에 해당하는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통속

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푸코의 논의가 확장된 보드리야르의 입장에서선 주체성을 상실한 채 물화되고 상품화되어 소비되는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통속적 섹슈얼리티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와는 반대로 진화적¹⁰⁾ 섹슈얼리티란 사회적 제도와 관념의 틀을 깨고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좀 더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지향하는 섹슈얼리티를 의미한다. 푸코의 논의에서는 사회의 지배적인 성 담론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을 표현하는 섹슈얼리티가 여기에 해당되며, 보드리야르의 입장에서선 물개성과 물화되고 상품화된 성에 반대하면서 인간 주체적인 성과 삶을 지향하는 섹슈얼리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혼재적 섹슈얼리티란 위의 통속적 섹슈얼리티와 진화적 섹슈얼리티가 한데 뒤섞여 있거나,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해석됨에 있어 통속적인 섹슈얼리티가 진화적 의미로 해석된다거나, 진화적 섹슈얼리티가 통속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다의적이고 중층적인 섹슈얼리티를 혼재적 섹슈얼리티로 구분하고 이것을 섹슈얼리티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틀로 사용하기로 한다.

III. 영화와 무용 속 섹슈얼리티 이미지와 몸

여기서는 세 편의 영화, 마이클 크리스토퍼 (Michael Cristofer) 감독의 「오리지널 썬 *Original Sin*」(2001)과 사이먼 웨스트(Simon West) 감독의 「툼 레이터 *Tomb Raider*」(2001), 홍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 *Girls' Night Out*」(1998)와 세 편의 무용작품인 케너스 맥밀란 (Kenneth MacMillan) 안무의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1965), 마츠 에크(Mats Ek) 안무의 「카르멘 *Carmen*」(1992), 마기 마랭(Maguy Marin) 안무의 「비대한 세상 *Groosland*」(1989)에 표현된 다양한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위의 이론적 과정에서 도출한 섹슈얼리티의 분석틀에 적용하여 각 작품들의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어떠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10) 진보적이라는 단어보다 굳이 '진화적'이란 단어를 선택한 것은 사회와 호응하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섹슈얼리티의 속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기능들을 수행하는지 분석하였다. 작품분석에서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생성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환경은 각각의 매체에 특성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화에서는 배우들의 의상과 소품을 중심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많은 무용에서는 의상과 소품, 그리고 무용수들의 동작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을 미리 밝혀둔다.

영화 「오리지널 씬」과 맥밀란의 발레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은 고정적인 성역할과 지나친 이성애의 표현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성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통속적인 섹슈얼리티를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리지널 씬」에서 남성성은 극중 주인공인 루이스(안토니오 반데라스)로 대변된다. 기성복이나 보울러 햇(Bowler Hat)¹¹⁾을 착용하고 시가(Cigar)를 문 그의 복식은 부를 통해 권력을 획득해나간 1800년대의 신흥 부르주아 계급을 상징하며 지배계층으로서의 남성성을 형상화한다. 또한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이나 깔끔하게 면도된 수염 등의 스타일링은 예절과 매너를 중시하는 ‘사회원리’에 충실한 이성적인 남성을 표현한다. 또한 말을 타고 총을 들고 등장하는 루이스가 표현하는 활동성과 공격성은 ‘쾌락원리’에 충실한 지배적인 남성적 속성을 대변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남성들의 기본복식 또한 지배계층을 대변하는 화려한 귀족의상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남성의 지위와 권위를 표현한다. 의상에 부착된 금박장식은 갑옷을 연상시키면서, 시장에서의 싸움장면이나, 결투와 죽음의 장면과 중첩되어 공격성과 잔인성을 남성성의 한 측면으로 형상화한다. 또한 이 작품에서 남성성은 영화와는 다르게 남성 무용수 신체적 움직임이나 손과 발동작을 통해 규정되기도 한다. 손발동작의 직선처리는 직선이 주는 날카로움이나 강인함을 남성 특유의 성질로 규정하고, 이인무에서 움직임의 중심을 잡고, 동작을 만들어 내는 주체로 남성이 리드하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임을 암시하는 장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여성성의 측면도 비슷하게 분석된다. 「오리지널 씬」의 줄리아(안젤리나 졸리)가 착용하는 의상은 소매를 부풀리고 가슴을 부각시키며, 허리는 가늘게 보이는 감성

11) 19세기 중반에 보편화된 기성복은 당시 상류사회의 상징이었으며, 그들이 착용한 보울러 햇은 구입할 때 비싼 세금을 치러야 할 만큼 사회적 지위와 계층을 대변하는 액세서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적이고 낭만적인 느낌이 드는 프릴이 달린 여성스런 롱 드레스이다. 이는 1800년대의 상류층 여성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유연함이나 부드러움을 여성성에 덧입힌다. 영화는 유연함과 부드러움이라는 여성성에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통해 세밀한 여성성을 연출해낸다. 줄리아의 헤어스타일은 검정색 모발 위에 당시 유행하였던 인모나 화학섬유의 가발 헤어피스(hairpiece)를 머리 뒤에 덧붙여주어 풍성하고 매력적으로 연출하였다. 또한 메이크업은 요염하게 표현하기 위해 눈썹은 가늘고 길게 그렸고, 어두운 색조의 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인을 사용해 깊고 또렷한 눈매를 연출한 후, 누드 베이지 색상의 립스틱을 발라 눈매의 그윽함과 관능미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능미는 쾌락, 탐욕, 파멸 등 '쾌락원리'의 극점에 위치해있는 여성성으로 인식되고 이로써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정당하다는 기존의 성 담론을 재확인시킨다.

마찬가지로 무용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으로 대표되는 여성성은 얇은 실크소재의 의상이나 레이스 달린 의상을 중심으로 부드러움과 유연함을 대변한다. 여기에 인형이라는 소품을 더함으로 소녀 같은 앳됨, 순수성을 여성성에 추가한다. 그리고 독무나 군무 속에서 여성무용수의 손발동작은 대부분의 경우 곡선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이 또한 곡선이 가지는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통해 의상에서 전제된 여성성을 한층 강화하고 고정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줄리엣이나 레이디 케플렛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무용수를 하녀나 창녀, 유모 등의 역할에 배치함으로써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남성중심의 시각을 드러낸다.

이처럼 두 작품은 다양한 형태로 정형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캐릭터에 덧입히고, 이들의 성 정체성이나 성 역할의 변화 없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서사구조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혹은 무대 위에 배치하여 감동적인 이성애를 연출해 낸다. 영화 「오리지널 썬」에선 영화 프레임의 절반 이상에 남녀 주인공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무용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선 서사구조의 중심을 남녀 무용수의 이인무에 두고 이들의 감미로운 동작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과 슬픔을 표현하였다. 이는 프레임이 표현하는 이미지 자체가 혹은 이인무의 순간적 동작 자체가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남녀 이성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됨을 의미한다. 영화 「오리지널 씬」과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은 남녀 간의 비극적인 사랑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전개해나간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물론 전자의 경우 비극의 원인이 여성이 가진 팜프파탈적 매력에 초점을 둔 반면, 후자의 경우 전통과 제도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라 하겠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엄격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구분이 전제되어 있고, 스크린과 무대의 많은 부분을 이성애적인 장면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지배적인 성 담론을 재생산하고 확산시키는 통속적 섹슈얼리티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통속적인 섹슈얼리티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만연한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담론이라면, 진화적 섹슈얼리티는 여기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진화적 섹슈얼리티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양하고, 인간의 성 정체성이나 성역할이 문화와 환경에 의해 달라지거나 변화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포함하는 섹슈얼리티 담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2001년에 개봉한 영화 「툼 레이더」는 여성 그 자체로 남성과 동등하거나 혹은 우월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확산시켰다는 점과 1992년에 초연된 마츠 에크의 「카르멘」이 기존에 있어왔던 여성성을 중화시키고 남성성을 모방하려는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영화 「툼 레이더」의 「라라 크로프트」는 기존에 인식되어 오던 여성상과 전혀 다른 모습의 여성을 제시한다. 영화 속의 라라는 전문적인 고고학 지식이 풍부하고 각종 무술과 총기, 첨단기계 활용에 유능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는 적극적인 여성이다. 섹시하고 당당한 여전사의 이미지를 위해 의상은 검은 가죽 핫팬츠나 활동성이 좋은 탑을 선택하였으며 헤어스타일은 이마와 얼굴라인을 드러낸 스타일로 검은 모발을 전부 이마 뒤로 넘겨 땅음으로 카리스마 있게 연출하였다. 메이크업 또한 색감이 절제된 내추럴 메이크업을 통해 여성이 가진 건강미를 표현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기본 이미지에 영화 속의 소품인 총과 칼, 군용 망원경, 오토바이, 자동차, 헬기 등을 매치시킴으로 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강인한 여전사의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영화 「툼 레이더」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여성의 이미지를 해체하고 더 이상 남성의 보호아래 놓여 있는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유지해나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성을 이미지화 한다. 남성성의 대명사인 총과 칼 등의 무기를

여성에게 매치시킴으로 여성성에 반전을 주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주도적 힘을 지닌 여성, 문제해결의 중심을 차지하는 여성을 이미지화 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남녀 간의 지위와 권력의 불균형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던 통속적 섹슈얼리티의 지배를 해체시키면서 새로운 저항담론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진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반면 마츠 에크의 「카르멘」에 등장하는 집시 여인 카르멘은 원작에서 강조되는 팜프파탈적인 여성의 매력보다는 중성 혹은 남성적 매력이 좀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카르멘은 붉은 색의 다단 레이스가 장식된 스페인 전통의상인 ‘파드로 플라멩고’를 입고, 뒤로 묶은 머리를 붉은 색 꽃 장식으로 동여뒀지만, 「오리지널 썸」의 줄리아나 「로미오와 줄리엣」줄리엣이 보여주는 여성과 오히려 비교된다. 비록 여성의 의상을 입었지만 카르멘은 남성의 상징인 시가를 물고, 이인무에서 남성을 들어 올리고 움직임은 주도하며, 무용 동작에서 부드럽고 우아하기보다는 거칠고 활동적이며 때로는 난폭하고 기괴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여성성을 파괴한다. 즉 소품의 변화, 여성무용수를 돋보이게 하는 무대 배경과 조명, 그리고 동작의 변화는 카르멘을 수동적이고 유약한 여성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에너지가 충만한 여성으로 이미지화시키고 오히려 남성을 압도하는 듯 보이게도 한다. 이처럼 마크에즈의 「카르멘」은 정형화된 기존의 여성성을 중화시키고, 오히려 남성성의 상징이었던 소품이나 동작들을 배치함으로써 전통적인 규격과 정형, 억압에서 벗어난 여성의 자유로움을 표현한다. 물론 여성 카르멘과 남성 호세의 이성애를 중심으로 서사구조가 흘러가지만 마츠 에크의 「카르멘」은 남성중심의 관점을 비틀고, 기존의 유약한 여성성 대신에 자유롭고 강인한 여성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화적인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진화적인 섹슈얼리티를 표방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성공적으로 그 의도한 바를 대중과 소통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영화나 무용에 드러나는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텍스트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창작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해석되는 이유에서 드러나는 문제일수도 있고, 반대로 텍스트를 쓰는 입장에서 창작자가 섹슈얼

12) 김정옥(2000), 성의 분화와 해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7, p. 16.

리터를 혼용하는 경우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 개봉한 홍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는 여성의 몸과 성이 스토리와 이미지의 중심이기에 그간 소외되고 억압되어 왔던 여성의 몸을 스크린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성적 관행에서 여성중심의 성적 관행을 논한다는 점에선 분명 새롭고 진화적인 성 담론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획의도대로 실질적으로 논란이 되었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일기도 했다.

영화 속에 표현되는 섹슈얼리티 이미지는 그동안 부정적이고 부차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섹슈얼리티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억압된 성의 해방과 자유화가 성을 도구화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논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영화가 다루는 섹슈얼리티가 통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와 무관하게 스크린에 전시되는 여배우들의 관리된 몸매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 몸의 물신화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몸의 규격화, 정형화라는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점에선 통속적이라고 해야겠다.

한편 1989년에 초연된 마기마랭의 작품 「비대한 세상」은 사실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남성무용수가 쓰고 있는 보올러 헛이라든지, 여성무용수가 탈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복잡한 속옷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상류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르주아 계급의 전유물이었고, 이것을 착용한 무용수를 통한 희화화는 인간적인 가치보다는 이윤을 탐하며 귀족인척 하는 “부르주아에 대한 패러디”¹³⁾였다. 하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다른 소품인 고무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이미지는 그러한 근본적인 의도보다는 부차적인 의도였던 정형화된 신체 를 고집하는 이전까지의 무용에 대한 풍자 혹은 현대 소비자본주의사회의 폐해인 상품화된 육체에 대한 풍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해석되었다.

「비대한 세상」에서의 몸은 날씬한 무용수의 몸과는 대비되는 발가벗은 풍보의 모

13) 마기 마랭은 두툼한 고무의상을 통해 육체의 상품화나 규격화를 희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뽀뽀 부르주아 계급의 탐욕을 풍톱하고 비대한 육체를 빗대어 패러디 한다고 하였다. 김주희(2011), 춤에서 드러난 젠더적(gendered) 몸의 양상 연구: 마기 마랭의 「그로스랜드」, 안 파브르의 「눈물의 역사」, 빌 티 존스의 「고스트캐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67-68.

습으로 기존의 무용수에게 강요되었던 가냘프고, 아름다운 신체에 대한 인식을 비틀고 뒤집는다. 또한 협주곡 2번 2악장에서의 뒤뚱거리는 남녀 무용수의 이인무를 통해 기존의 발레 작품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이상적인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이인무를 희화화한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 사회의 성형과 다이어트 등으로 표현되는 외모지상주의와 자본으로서의 신체를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이상화된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해체한다. 이렇게 볼 때 「비대한 세상」은 진화적인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한 세상」이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신체 혹은 무용을 패러디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에 가해지는 강제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진화적 일지라도, 작품 전체에 만연해있는 엄격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이라든지, 남녀 무용수의 이인무를 통해 기존 사회의 지배적인 이성애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속적 섹슈얼리티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IV. 이미지 생성과 해석의 근원으로서의 몸과 확장성

이상에서 섹슈얼리티를 크게 통속적, 진화적, 혼재적으로 구분해보고 영화와 무용의 작품을 통해 그 이미지와 내포된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영화와 무용 모든 경우에서 이미지의 발화점은 배우나 무용수의 ‘몸’이다. 하지만 안젤리나 졸리라는 동일한 여배우의 몸이 영화 「오리지널 썬」에서는 팜므파탈의 치명적 매력을 소유한 통속적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반면, 영화 「툼 레이더」에서는 남성을 초월하는 강인한 여전사의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기존의 유약한 여성성을 해체하고 진보적이고 진화적인 여성성이라는 섹슈얼리티를 구성한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이미지의 발화점이 인간의 ‘몸’이지만 몸만으로는 온전한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표현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의 사실들은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는지 보여준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티볼트가 칼이라는 도구를 들었을 때, 칼은 티볼트에게 공격성과 폭력성이라는 고착화된 남성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영화 「툼 레이더」의 라라가 들었을 때, 칼이 상징하는 남성성은 라라의 여성성과 중화되면서 ‘라라 크

로포트'를 기존의 여성과는 전혀 다른 여성성을 가진 상징체로 만든다. 마찬가지로 남성성의 상징인 시가(cigar)라는 소품은 「오리지널 씬」의 루이스에게 남성이 소유한 권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무용 작품의 카르멘에게는 남성성을 전이시키면서 그녀가 가진 여성성을 중화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사실은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몸을 통해 발화되지만, 그것이 특정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과 끊임없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몸'이 의상에서부터 작은 소품, 도구 그리고 스크린이나 무대의 조명과 음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상징체로 기능을 할 때 섹슈얼리티 이미지는 특정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유기적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몸의 특성을 본 연구자는 '확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몸이 가진 확장성은 의상이 가지는 의미를 몸에 고착시키고, 소품이나 도구 등의 오브제¹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몸에 흡수하고 조명의 색감이나 음향의 효과를 활용해 의미를 증폭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조화를 이룬 몸 자체를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하게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확장의 대상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미지의 상징성에 차이가 생기고 해석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시가를 물고 있는 카르멘은 여성의 남성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지만, 타이트한 검은 의상에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라라는 여성이 가진 남성성이라는 상징적 의미 위에 강인한 전사라는 사실적인 의미를 새겨 넣는다. 때문에 누구라도 영화 속에 등장하는 라라를 보면 여전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반대로 확장할 것이 거의 없는 몸으로만 표현되는 이미지는 지나치게 상징적 의미로 기능하기에 해석하는데 있어 오히려 왜곡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에 등장하는 여성의 성적 이미지는 성적주체로 독립한 여성을 상징하는 진화적인 것이었지만, 수용자는

14) 오브제란 미술의 용어로 작품에 쓴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관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이르는 말이지만 재료를 의미하는 미술 용어로 영화의 물질적, 가시적 재료를 통칭하는 것이며, 무용에서는 무용수의 몸, 무대장식, 소도구, 사물을 통칭한다. 최현아 (2002), 영화와 몸: 영화에 나타난 몸의 상징성과 표현형식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석사 학위 논문, p. 46.

벗은 몸을 전시한다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육체의 사물화나 성의 상품화라는 통속적인 섹슈얼리티 이미지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공존하는 혼재적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생기기도 하고, 예술과 외설이라는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화와 무용은 '몸'이 가지는 확장성이라는 특성을 통해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생성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선 똑같다. 그렇지만 카르멘이 표현하는 진화적 섹슈얼리티와 라라 크로포트가 표현하는 진화적 섹슈얼리티에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징성에서는 카르멘의 이미지가 뛰어나지만, 해석을 하는데 있어선 라라 크로포트의 이미지가 더 쉽게 다가온다. 다른 한편 카르멘이 표현하는 이미지는 바로 보는 이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기에 2차 가공을 거친 영화의 이미지보다는 생생하게 느껴진다. 이는 몸이 가진 확장성이 영화라는 매체와 무용이라는 매체 속에서 기능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그 매체가 가진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선 영화의 이미지들이 무용의 이미지들보다 해석하는데 있어 훨씬 용이하다는 점은 영화라는 매체가 무용이라는 매체보다 매체 특성상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¹⁵⁾으로 해석된다. 시간적·공간적 제한이 거의 없고 수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영화의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몸은 무대 위의 몸보다 더 많은 대상을 통해 확장해 나감으로 이미지에 세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단적인 사례로 통속적인 여성성을 무용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은 두세 벌의 무대의상과 몇몇 소품을 통해 표현한 반면, 영화 「오리지널 썬」의 줄리아는 시간과 장소에 따른 수많은 의상과 모자, 귀걸이 가발 등의 다양한 악세사리 그리고 메이크업 등을 통해 세밀하게 표현한다. 확장의 대상이 많아짐으로 상징성이 줄어들고 사실성을 늘어난 영화의 이미지는 가독성이 높아서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가독성은 영화가 무용보다 더 대중적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15) 영화는 프레임에 포함된 정보가 많고 정세도가 높은 핫 미디어이고, 반대로 무용은 영화보다 훨씬 적은 정보를 포함하는 정세도가 낮은 쿨 미디어이다. 이런 매체의 특성 때문에 영화 속의 몸이 더 많은 대상과 정보로 확장되고, 이미지는 그만큼 해석하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마샬 맥루한(1964), 『미디어의 이해』, 이한우, 김성기 (역)(서울: 민음사, 2002), p. 56.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세세함은 작품을 감상하는 흥미를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작품이 가진 상징성을 없애고,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 또한 떨어뜨리게 된다. 때문에 영화든 무용이든 몸의 확장성을 활용한 적절한 의미표현과 소통은 작품으로서의 영화와 무용이 예술로서 기능하며 대중과 호흡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하겠다.

V. 결 론

현대는 섹슈얼리티 이미지와 담론이 지나칠 정도로 넘쳐나는 사회이다. TV와 광고, 영화와 무용, 연극 등 수많은 매체에서 우리를 마비시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정보가 흘러나오고,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를 예술작품에 표현함에 있어 섹슈얼리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성적 자유라는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 최근의 성인 연극이 관람객을 위해 밑실을 제공하고 관객의 관음증을 부추긴다는 뉴스 기사는 오늘날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창작자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부터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면서,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입장과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의 입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인간의 몸과의 연관 속에서만 파악되는 이미지에 영화와 무용의 다양한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를 분석하여 이미지에 내포된 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자유와 맞물린 개념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섹슈얼리티 이미지는 프로이드의 주장처럼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심리적 측면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푸코나 보드리야르의 분석에서처럼 사회제도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섹슈얼리티 이미지가 작품 속에서 표현되고 대중과 소통되는 하나의 텍스트이기에, 이러한 발생과정

에 대한 이론적 탐색보다 섹슈얼리티에 내포되어 있는 기능성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섹슈얼리티의 기능적 측면에 따라 통속적, 진화적, 혼재적 섹슈얼리티로 구분한 것이다.

섹슈얼리티가 기존의 사회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취향이나 의지를 억압하는 것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통속적 섹슈얼리티라고 보았으며,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의지와 자유, 그리고 다양한 취향을 인정하고 그것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저항적인 기능을 함축하는 경우 진화적 섹슈얼리티로 보았다. 물론 섹슈얼리티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시대와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과도기적인 형태로 섞여 있는 경우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창작자의 불안정한 이해에서 오는 혼재적 섹슈얼리티도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섹슈얼리티의 기능적 측면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다룰 때 특히나 더 많은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분석에 활용된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통속적으로 분류된 것은 작품 속에 표현된 아름다운 동작 이면에 남성과 여성의 획일적인 구분과 역할 규정,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이성애적 관점으로만 파악하는 시각 때문이었다. 반대로 헐리우드 영화 「툼 레이더」에 표현된 이미지들을 진화적 섹슈얼리티로 규정하는 것은 그 속에 내포된 의미가 여성성의 반전과 새로운 여성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구분 때문에 다수를 위한 예술은 포기하고 소수를 위한 작품만을 고집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술작품을 구상함에 있어 특히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는데 있어 그 방향성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류와 구분이 미흡한 형태로 구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한계와 섹슈얼리티를 도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방향성은 현대 사회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섹슈얼리티 담론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날카로운 상징성을 갖추고 대중과 호흡하는 작품을 창작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 섹슈얼리티 이미지는 몸이 가진 '확장성'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는다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확장성'은 몸이 주변의 다양한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는 섹슈얼리티 이미지를 발화시키는 것은 배우나 무용수의 '몸'이지만 거기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몸에 결합

되는 다양한 주변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상이나 특정 의미를 지닌 소품, 무대장치나 조명, 음향 등이 몸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몸은 하나의 상징물로 작용하고 특정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때 몸이 확장하는 대상이 많을수록 이미지는 더욱 해독하기가 쉬워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몸의 확장성은 영화와 무용이라는 매체특성과 작용하여 그 매체의 고유한 성질을 이미지에도 적용시킨다. 매체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화의 경우 프레임 속의 몸은 많은 정보와 결합하여 섹슈얼리티 이미지의 상징성보다는 사실성을 더 부여한다. 반면 무용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이 크기에 무대 위의 몸이 확장할 대상이 적은 이유로 이미지의 사실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많아진다.

이런 결과는 각각의 매체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영화는 몸의 확장성을 지나치게 이용하다보니 대중에게 의미전달은 용이하나 예술성을 잃어버리고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무용은 몸의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예술성과 상징성의 강조로 대중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따라서 몸의 확장성을 고려한 적절한 표현은 두 매체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몸의 확장성을 중심으로 영화가 예술의 영역으로 복귀하는 것과 무용이 대중의 영역으로 좀 더 다가가는 것, 이것이 본 연구가 굳이 영화와 무용을 하나의 맥락에서 살펴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작품에 있어 섹슈얼리티를 다룬다고 했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대중과 소통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끊임없이 현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섹슈얼리티를 이미지화하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작품 구상의 출발점을 현실과 창작자의 소통에 놓아야 함을 의미한다. 무용하는 몸에 가해지는 규격과 정형을 그대로 둔 채, 스스로 몸을 전시하고 사물화 하면서 대중들에게 진화적인 섹슈얼리티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대중성을 추구하기에 앞서 무용과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는 것은 무용하는 자신을 무용의 객체가 아니라 참된 주체로 세워주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반성을 기초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섹슈얼리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몸의 확장성을 이용해 표현해야 할 것인지 이해한다면, 대중과의 소통은 좀 더 원활해 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중 외(2000). 『섹슈얼리티로 이미지 읽기』. 서울: 인간사랑.
- 마샬 맥루한(1964). 『미디어의 이해』. 이한우, 김성기(역). 서울: 민음사. 2002.
- 미셸 푸코(1976). 『성의 역사-앓의 의지』. 이규현 역. 서울: 나남. 1990.
- 이광래(1989). 『미셸 푸코』. 서울: 민음사.
- 장 보드리야르(1970).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1.
- 조셉 브리스토우(1997). 『섹슈얼리티』. 이연정 역. 서울: 한나래. 2000.
- 한국성폭력상담소 역음(1999). 『섹슈얼리티 강의』. 서울: 동녘.
- 김말복(2005). 억압에서 해방으로 : 몸과 춤. 『무용예술학연구』, 16:29-62.
- _____ (2007). 몸과 춤. 『무용예술학연구』, 20:1-53.
- 김정옥(2000). 성의 분화와 해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7:351-372.
- 김주희(2011). 춤에서 드러난 젠더적(gendered) 몸의 양상 연구 : 마기 마랭의「그로 스탠드」, 얀 파브르의 「눈물의 역사」, 빌 티 존스의 「고스트캐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 박성환(2011). 시각이미지와 텍스트영상에 있어서의 ‘읽기-보기’의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영상학회』, 9: 3-17.
- 유미희(2000). 최승희 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의 근대적 성격. 『한국무용교육학회』, 11: 85-103.
- 이윤정(2003). 춤의 주체로서의 몸.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 정응근, 이정연(2003). 춤 문화 속의 몸에 관한 여성주의적 성찰. 『한국체육학회』, 42: 579-588.
- 최현아(2002). 영화와 몸: 영화에 나타난 몸의 상징성과 표현형식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논문투고일	2012년	2월	15일
심사일		2월	21일
심사완료일		2월	28일

Extensibility and Sexuality of Human Body

Soo jin Na

*Graduate School of Danc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figure out what roles the body plays in generating and interpreting sexual images and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dy are in the intervention to it. However, unlike the reality that sexual images are excessive,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proper understanding of sexuality or the expressive methods of it still lack, and particularly, the study on 'the body' centering around sexual images is very rare; thus, this study not only analyzes actual works but conducts theoretical tasks, too. Therefore, this study largely consists of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what the sexuality is and how it works and the analytic process to figure out the body's roles in the process of generating sexual images and acquiring meaning through movies and dance works.

In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and theory of sexuality. Based on that, this study divides sexuality by its functions into the common sexuality which extends and reproduces the ruling discourse of the society, evolving sexuality which expresses resistant discourse, and the mixed sexuality which either coexists or is interpreted totally differently. These are adopted as the actual criteria to analyze the works. In the analysis process, this paper analyzes three movies, 「Original Sin」, 「Tomb Raider」, and 「Girls' Night Out」, and three dance works, 「Romeo and Juliet」, 「Carmen」, and 「Groosland」 to figure out how they produce the diverse sexual images expressed in them and how they take meaning in the association with the body.

In this process, it was found that sexual images are generated not just by the actor's or the actress' body and the dancer's body but by organic harmony with various objects appearing on the screen or stage such as costume or props, too. This study vie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dy organically harmonized with surrounding environment as 'extensibility'. Also, the fact that as the objects of expansion are

more, it is easier to interpret the images and as it gets fewer, the symbolic meaning becomes stronger and it is harder to interpret them means that the body's extensibility is not just the source of sexual images but the passage of interpretation as well.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fact that sexual images are generated and interpreted around the 'extensibility' of the body provides constant directivity to the creator's position about how to realize sexual images and also provides information to the receptor's position about how to interpret the sexual image.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body's extensibility provides ways for dance art centering around the body to communicate with people.

keywords: Body(몸), Image(이미지), Symbolism(상징성), Sexuality(섹슈얼리티), Extensibility(확장성)